

## 감사

끝이 없는 길처럼 보였던 박사 학위를 마무리합니다. 그 기나긴 날만큼이나 부침도 많았습니다. 2011년 연구차 방문했던 홍콩의 한 시장에서 관촬계 생긴 보온 차 통을 하나 샀는데, 거기 적혀있는 한문 글귀를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 한참 이후에야 우연한 기회에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세상 사가 원래 부침의 연속이니, 개의치 말고 차나 한 잔 하시게.”

그 가르침에 따라 한 잔, 한 잔 마시다보니 어느덧 여기입니다. 그동안 차를 찾던 제 손길에 닳아 반쯤 없어져버린 그 글귀가 지난 박사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박사 과정을 잘 마무리하게 된데에는 지도교수님이신 이광근 교수님의 올곧은 가르침이 가장 컸습니다. 사자는 새끼를 강하게 키우기 위해 낭떠러지로 일부러 민다는 속설이 있습니다.<sup>1</sup> 교수님 지도 아래 공부하던 시간은 절벽을 수없이 오르내리며 수련하던 과정 같습니다. 언제나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게끔 이끌어 주셨고, 작은 성과에 취해 있을 때는 호된 꾸지람을, 절벽에 매달려 허우적 거리고 있을 때는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특히 연구자로서, 주변의 문제부터 진지하게 해결하고, 동료들과 겸손하게 소통하며, 지원에 감사하는 자세를 가지라고 늘 가르치셨는데 앞으로도 가르침을 새기고 실천하는 연구자가 되겠습니다.

운이 좋게도, 박사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훌륭한선 선생님들을 알게 되고 함께 연구하며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옥스포드 대학교의 양홍석 교수님과 연구하면서 어려운 문제도 차분하게 하나씩 풀어나가는 끈기를 배웠습니다. 무턱대고 덤비다가 큰 문제에 부딪혀 좌절하던 시절에 양교수님의 격려가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홍콩과기대를 방문하면서 만난 김성훈 교수님께서는 연구하는 재미를 배웠습니다. 연구에 한창 회의감이 들던 시절 김교수님을 만난 것은 행운입니다. 늘 여러 가지 문제에 호기심 가득한 태도로 접근하는 모습을 본받으면서 제가 박사과정을 끝마치는 원동력을 얻었습니다. 고려대 오학주 교수님은 제가 처음 석사 입학했을 때 부터 대학원 선후배로 만나 지금까지 가장 많이 토론하고 모든 논문을 같이 쓴 선배이자 선생님입니다. 연구 주제 설정부터 세부 구현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에서 같이 의논하며 연구자의 뼈와 근육을 기를수 있었고, 어려운 고비마다 많이 도와주셔서 즐겁게 박사과정을 마칠수

---

<sup>1</sup>속설일 뿐, 사실은 아니라고 합니다.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연구단에서 함께 했던 서울대 허충길 교수님, 카이스트의 류석영 교수님께서도 한 발짝 떨어진 곳에서도 늘 관심과 격려, 건설적인 조언을 많이 주셨습니다. 서울대 김건희 교수님께서도 학위 심사를 맡아주시고 박사 과정을 마무리하는데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서울대학교 프로그래밍 연구실에서 대단한 실력을 가진 동료들과 뒹굴면서, 그들 덕택에 크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늘 변죽이는 아이디어와 끈질긴 노력으로 가득 찬 우석이, 원찬 형과 연구하던 시절은 다시 오지 않을 소중한 시절입니다. 꼼꼼하고 사려깊은 성근 형 덕택에 밤낮으로 분석기를 만들던 지난 겨울, 그 치열한 한 달을 이겨내고 큰 결실을 맺었습니다. 마지막 학기까지 같이하며 힘이 되었던 진영, 상우, 동권, 덕은, 준모, 요한이의 멋진 석,박사 논문도 기대합니다. 또한 그동안 연구실을 거쳐 갔던 많은 선후배들의 좋은 영향도 제 연구 성과에 직, 간접적으로 감사히 묻어 있습니다. 거인같은 그들의 어깨위에 올라탄 덕택에 더 높고 먼 곳을 바라보며 성큼 성큼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기나긴 학생 딱지를 떼기까지 공부 이외에 다른 것은 신경쓰지 않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이 논문을 바칩니다. 여태까지 늘 부족함이 없이 하고 싶은 것을 만끽하며 행복하게 살아온 것은, 혹여 가족들의 행복을 빌려다 쓴 결과가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는 그 은혜 갚아나가며 살겠습니다.